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강원도정신은 세차게 내려친다

지난 7월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강원도야묘장, 충도원종합식료공장,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모형을 따라결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뜨겁게 보며 느끼고있다.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강원도정신이 어떻게 더욱 힘있게 나래치고있으며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무장으로 고무추동하는 강원도의 기적과 혁신들이 무슨 힘에 떠받들려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가들.

얼마전 우리는 강원도취체길에서 이에 대하여 가슴벅차게 절감할수 있었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서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과 열본새를 따라배워 수령의 유훈, 당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기하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강원도에 대한 취체길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신장은 세차게 달아올랐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어가신 삼척시의 무너진 날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현신의 자욕자욕을 새겨가시며 강원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해주시었다고 생각하니 쉽게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현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남기신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감격에 넘쳐 들려주었다.

강원도야묘장에서 우리가 받아안은 감동은 참으로 컸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오셨던 전방대에서 야묘장의 전경을 바라보느라 저도모르게 감탄이 터져올랐다.

수십정보의 면적에 수직경관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삼복장, 경기집생산장, 종지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청사, 목포견식장,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 어느곳이나 현대적으로 꾸러진 자기의 자태를 한껏 뽐내고있었다.

태백 불수목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 최첨단 모습을 보시며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야묘장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되고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데 대하여 얼마나 만족해하시었는가.

강원도야묘장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을 두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의 설계수준과 건설수준이 높아졌다고, 야묘장의 시공을 잘했다고 하시였다.

야묘장의 일군에게서 잊지 못할 그날에 있었던 사실을 전해들은 우리의 마음은 승연한 격정에 휩싸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설 때 한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앞장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누구도 용량한 본분이건만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성과로 그러도 없이 내세워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산림복구전투에서 강원도가 기치를 들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놀이 평가해주시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년간 2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가 또 하나 멋있게 세워졌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고품질 산림자원을 경제건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으로, 자연원리까지도 전변시키기를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장교와 같은 야묘장을 번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로 일떠

세우고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였다.

뜻 깊은 그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중에 회고될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또한 미소를 지고서 그이께서 그리보신것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의 야묘장들을 강원도야묘장과 같이 손색없이 일떠세우실 결심은 더욱 굳히시며 이 야묘장들에서 해마다 생산되어나오는 나무모그루수까지 헤아리시면서 더욱더 푸르려 심혈을 조국강산의 폐일을 그려보시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모습은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이렇듯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안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러르며 일군들은 나무모생산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강원도야묘장은 무심히 불수 없는 자력경쟁의 창조물이었다. 야묘장건설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기본으로 도자재로 생산보장했다는 사실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을 하나 일떠세워도 도자재의 힘으로, 모든것을 노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일관된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질, 일본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하 기 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경쟁과 자금자족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익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야묘장은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되어있는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수직경관온실에서 토지절

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의 우월성을 깊이 체감할수 있었다.

제한된 땅에서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수 있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수직경관온실이었다.

온실실비들의 자동화, 기계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온도와 습도, 빛조건과 관수 등 나무모생육에 필요한 최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게다가 드넓은 온실 한호층을 3명의 인원이 관리하며 56만여그루의 나무모를 키운다. 한해에 두회전을 하여 112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실리적인 온실이다.

야묘장의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로컬절약형, 토지절약형 나무모생산이라고 하시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을 주체로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야묘장에 찾아오신것은 훌륭하게 풀어나가는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일관된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질, 일본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하 기 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경쟁과 자금자족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익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야묘장은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되어있는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수직경관온실에서 토지절

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의 우월성을 깊이 체감할수 있었다.

제한된 땅에서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수 있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수직경관온실이었다.

온실실비들의 자동화, 기계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온도와 습도, 빛조건과 관수 등 나무모생육에 필요한 최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게다가 드넓은 온실 한호층을 3명의 인원이 관리하며 56만여그루의 나무모를 키운다. 한해에 두회전을 하여 112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실리적인 온실이다.

야묘장의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로컬절약형, 토지절약형 나무모생산이라고 하시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을 주체로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야묘장에 찾아오신것은 훌륭하게 풀어나가는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일관된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질, 일본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하 기 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경쟁과 자금자족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익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야묘장은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되어있는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수직경관온실에서 토지절

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의 우월성을 깊이 체감할수 있었다.

제한된 땅에서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수 있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수직경관온실이었다.

온실실비들의 자동화, 기계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온도와 습도, 빛조건과 관수 등 나무모생육에 필요한 최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게다가 드넓은 온실 한호층을 3명의 인원이 관리하며 56만여그루의 나무모를 키운다. 한해에 두회전을 하여 112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실리적인 온실이다.

야묘장의 일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로컬절약형, 토지절약형 나무모생산이라고 하시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을 주체로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야묘장에 찾아오신것은 훌륭하게 풀어나가는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일관된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질, 일본세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하 기 에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은 자력경쟁과 자금자족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강원도사람들처럼 이익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야묘장은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되어있는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야묘장이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돌아보신 수직경관온실에서 토지절

예군인가방공장에 새겨가시며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존대하며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회가 영예군인공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잘 도와주라고, 그들이 후대들을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성실한 로동의 열매를 맺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무더운 삼복철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따뜻한 고무장갑을 여주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게 대한 고무마음에 젖어있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숭고한 호령을 받는 150여가지의 맞춤형, 당파류와 식료공공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소문을 내고있는 것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라글 뛰어다니는 강원도일군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대업이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현시기가 가장 중대하고 선진적인 정책적과업으로 풀이되고 전당적, 전국적가치를 집중하여 증진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숭고한 뜻이 높이 울려 퍼진 강원도야묘장, 전정 자기의 새 모습을 한껏 드러내며 나라의 세우는 문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나무모를 심을 때 대한 문제...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야묘장에 대한 이어 길이 전할 사람의 화복을 남기시였다.

자력경쟁의 기치가 펄럭 휘날리는 력사의 땅,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무장으로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가슴 벅찬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당이 또 다시 비상한 창조본래, 불굴의 기개로 용감마냥 뛰어넘어지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답게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자력경쟁의 위력을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생산적안양을 일컫는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어기에는 앞으로는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이 한없는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기를 바라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크나큰 기대가 뜨겁게 담겨있었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 대한 수령님, 원원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재부나 빛나는 강원도야묘장의 모습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날마다 푸른 숲으로 변모되어가는 우리 조국의 축

기복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기적과 혁신의 풍운을 더 높이 울려 퍼진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기!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어준 이런 불같은 신념을 안고 강원도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강원도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은 더욱더 백배되고 강원도정신은 이 땅위에 더욱 세차게 나래칠것이다.

글 쓴사자 김 정 현
사진 쓴사자 최 충 성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식료품을 안겨주리라 | 미패사랑으로 이어진 철신의 자욱

실 지 은 을 대 도 록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통합생산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한 일군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통합생산시설에 대해 물어보시어 대답하시였다.

그이의 물음에 일군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공장에 서 구축한 통합생산시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는 일정하게 온을 나타내고있었지만 자력경쟁에 있어는 아직 만족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과학적인 안 목 으 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깊이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의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정통하는것이 생산성상호본인이나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라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파자생산공장을 돌아보신 때였다.

생산되어나오는 파자를 집어 드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파자의 색깔이 흐릿하고 짙지 못하니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깊이 생각을 굴러보았지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미 패 사 랑 으 로 이 어 진 철 신 의 자 욱

아담하게 들어있는 산뜻한 건물들과 수많은 갈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새로운 야외공원...

이것이 얼마전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찾았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안겨준 전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영예군인들이 이처럼 자기들의 일터를 훌륭하게 꾸리고 경에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당정책관철에 앞장선 강원도인민들의 건진불발의 투쟁정신이 되세겨져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그러나 공장을 돌아보는 우리의 심금을 더 세차게 울려준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패사랑의 세계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주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지난 7월 삼복의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공장을 찾아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소개를 돌아보시고 야외공원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장과 가방생산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할수 있도록 갈나무를 심어준 영예군인들과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며, 공장을 잘 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들마다에 수십만개의 학생가방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을 주체로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야묘장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담겨있었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 대한 수령님, 원원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재부나 빛나는 강원도야묘장의 모습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날마다 푸른 숲으로 변모되어가는 우리 조국의 축

바라보시며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애국인들과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며, 공장을 잘 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들마다에 수십만개의 학생가방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을 주체로 만들어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야묘장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담겨있었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 대한 수령님, 원원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재부나 빛나는 강원도야묘장의 모습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날마다 푸른 숲으로 변모되어가는 우리 조국의 축

당조직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았이었던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용성을 실속있게

합성하여 자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합생산시설에서도 기업경영관리와 생산관리부 부단히 경신하며 그에 의거하여 생산을 진행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자력경쟁체제를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에 도입하여 써보면서 계속 경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갖추고있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것을 바라는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깊이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의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정통하는것이 생산성상호본인이나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라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파자생산공장을 돌아보신 때였다.

생산되어나오는 파자를 집어 드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파자의 색깔이 흐릿하고 짙지 못하니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깊이 생각을 굴러보았지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깊이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의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정통하는것이 생산성상호본인이나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라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파자생산공장을 돌아보신 때였다.

생산되어나오는 파자를 집어 드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파자의 색깔이 흐릿하고 짙지 못하니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깊이 생각을 굴러보았지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김 영 남 동 지 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조 교 위 도 도 각 하

나는 인도네시아의 북부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나는 귀국정부가 하루빨리 피해를 가지고 피해지역인민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7(2018)년 8월 6일



점주시 일해협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동농장 제8작업

반 부문당위원회에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우선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충분히 갖추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대 중 교양장소들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카드식교양자료 등을 잘 구비해놓았다.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늘 그것을 보면서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부문당위원회는 연혁소개설을 비롯하여 거점들

처나서도록 열렬히 호소하였다.

반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당초 구일군들과 당초구일군들을 적극 발동하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두고있다.

당초구일군들과 당초구일군 일군들은 아침독보와 작업의 일환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장에 갖든 어비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에 고무된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당면한 영농전투를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로봉물신문 김 영 남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깊이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의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정통하는것이 생산성상호본인이나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라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파자생산공장을 돌아보신 때였다.

생산되어나오는 파자를 집어 드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파자의 색깔이 흐릿하고 짙지 못하니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깊이 생각을 굴러보았지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충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깊이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장의 모든 설비들에 대하여 정통하는것이 생산성상호본인이나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건적문제라는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파자생산공장을 돌아보신 때였다.

생산되어나오는 파자를 집어 드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파자의 색깔이 흐릿하고 짙지 못하니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깊이 생각을 굴러보았지만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다.

시대를 격동시키며 폭풍쳐 내달리는 강원도

결사판철, 이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질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전국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운 영웅적투쟁의 나날을 더듬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강원도를 수령의 유혹관철전, 당정책을위전,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전국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나라가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대정신의 고향에 자력자강의 또 하나의 창조물이 일떠섰다.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이 나무랄데 없고 해마다 2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춘 강원도양묘장, 지난 7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늘 제일먼저 기치를 들고나가는 강원도당에는 일감을 줄 것이 있고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라글 뛰어나는 강원도인민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싶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을 훌륭히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과정은 결사판철의 한결같은 이 시대정신창조자들의 정진력과 기질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살을 깎는 기간에 완성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이 펼쳐졌다. 도당 책임일군을 총책임자로 한 강력한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각 분과별로 분담안도 세분화되었다. 건설공사를 앞두고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이던 실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토록 관심하시는 우리 도양묘장의 실적을 최상의 수준,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로! 이것이 책임일군들의 높은 요구성이었고 설계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었다.

설계작성과 관련된 협의회담도 20여차, 당의 의도에 맞는 가 맞지 않는가를 하나하나 따지며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내세우며 수정하기를 수백번...

현대적인 양묘장을 만점짜리설계로 담보하자, 이런 목표를 내걸고 시작한 설계전투는 점과 선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예극의 열정으로 수놓아진 승리의 작전 도면이 되었다. 드디어 당의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된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도의 일군들과 설계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강원도정신을 기치로 추격하고 전진의 보폭을 이렇게 크게 내딛었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이렇게 양묘장건설과정을 자체의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생산기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급자족할수 있는 능력도 더욱 높이는 좋은 계기로 되도록 한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하다.

이런 날과 같이 흘러 200여 일, 강원도사람들은 팔팔대 방대한 건축공사와 시설물공사, 원림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고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총성의 보코를 높이 올렸다.

그렇다. 시대정신의 창조자료를 지력경쟁, 자금지축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릴수 있다는것을 실현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하였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당에도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양묘장이 당의 요구에 맞게 토지절약형, 로벽절약형의 현대화된 나무모생산기지로, 각 도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어 년간 2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으로 전변되었다.

전진의 기치 - 강원도정신

모든 일에서 앞장서나가는 강원도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된 신조가 있다.

우리는 강원도사람이다. 강원도사람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마땅히 기치를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

결사판철의 기치를 들고 산악산림구역의 수목재 대량건설, 동시에 내딛어야 할 생산시절구축, 나무모확보...

즉시 책임일군들의 현직당공과 협의가 진행되고 방대한 양

에서 그처럼 높이 내세워준 강원도정신이면 우리에게 못매일 일어난 없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더 앞당길 총성의 맹세안고 분발해나섰다.

공사장은 실로 방대하였다.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 산림구역의 수목재 대량건설, 동시에 내딛어야 할 생산시절구축, 나무모확보...

즉시 책임일군들의 현직당공과 협의가 진행되고 방대한 양

현대적인 양묘장을 만점짜리설계로 담보하자, 이런 목표를 내걸고 시작한 설계전투는 점과 선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예극의 열정으로 수놓아진 승리의 작전 도면이 되었다. 드디어 당의 의도에 맞게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된 설계가 완성되었을 때 도의 일군들과 설계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강원도정신을 기치로 추격하고 전진의 보폭을 이렇게 크게 내딛었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이제는 창조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도에서 생산한 마감재료를 비롯한 지방자재들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준비가 일떠섰다. 원의봉사시설과 살림집을 비롯하여 여러 대상의 마감시공과정이 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산유리병공장에 색유리양생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색유리알에 의한 압출시공기술을 공사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새리되고 색이 날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게 외마감시공을 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외장재와 장식용, 위생자기구, 금속건축구들을 비롯한 도의 건설자재들로 독특한 건축미를 실현 창조품을 늘여나갔다.

일터에 몰아치는 경쟁바람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성상화의 동력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정진하여야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직지도의 그날 가방공장에서의 기술교육을 조직하여 서로 배우고 지혜를 합쳐가며 가방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쟁속에 앞선 단위를 따라잡고 세계와의 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갈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에 닿았다.

제단적업반에 들어서니 박영철공장을 비롯한 제단공들이 가방전들을 쏠며있게 제단하고있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제작한 칼날제단기모 두들하게 쌓인 칼날전들을 수십개의 부분 품도안에 맞게 척척 제단하는 모습은 호모하였다. 더욱 미더운것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온 나무 가방공장들의 땀 앞장에서 내달리겠다는 제단공들의

확고하고도 드립있는 열의였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어머니실정으로 정진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다니다가선 때로부터 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나고있다.

공장이배낸의 말에 의하면 이 속도도 나가지면 올해중으로 보내 모든 학생들의 가방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한다.

후대들을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정열과 지혜가 솟았다고 격정을 머금은 영예군인가방공장에서.

비록 눈복은 벗어어도 우리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지켜가는 성스러운 일터에 어떻게 지키고 빛내야 하는가 이들을 지금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학생가방생산에서도 전국의 앞장서서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공장에서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려지고있다.

《자력성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자제와 혁신 기술로 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고 학생가방생산에서 반드시 패권을 쥐었습니다.》

정말 공장의 어디를 가보나 경쟁바람,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터에 불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다니다가선 때로부터 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나고있다.

공장이배낸의 말에 의하면 이 속도도 나가지면 올해중으로 보내 모든 학생들의 가방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한다.

후대들을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정열과 지혜가 솟았다고 격정을 머금은 영예군인가방공장에서.

비록 눈복은 벗어어도 우리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지켜가는 성스러운 일터에 어떻게 지키고 빛내야 하는가 이들을 지금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학생가방생산에서도 전국의 앞장서서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공장에서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려지고있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만사가 잘된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놓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은 위대한 창조정신으로 삼림포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 도들에 하나의 새취진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출발은 갈았지만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은 인기있는 제품생산으로 전국에 널리 소문이 나 각 도종합식료공장과사이의 거리를 뛰어넘어 선봉이 급급하고 있는 중앙식료공장과 당당히 경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판매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제품이 인민들속에서 인기있고 수요가 높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공장에서 경영활동을 잘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로해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해주시었다.

하더만 적지 않은 종합식료공장에서 조건관리를 하면서 없애야 할 불량제품을 강건도에 없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은 뚜렷한 자기 얼굴을 살리며 진보와 비약의 한걸음 내딛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7년전 지배인으로 임명된 름순희동무가 처음으로 전개한 사업의 하나는 분석설비부터 갖추어놓았다. 당시 공장에서는 초보적인 측정, 분석설비가 없이 생산을 밀고나 가다보니 같은 원료조건에서도 제품의 생산량과 질에서 자꾸 파동이 생겼다.

과학적인 경영관리체계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언제 가도 생산활성화를 기대할수 없었다. 하여 지배인은 큰마음을 먹고 당시 공업예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자금을 뚝 떼내어 측정설비부터 갖추어놓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과같이 생산이 좀 올라선 다음에 해도 되겠는데 새로 온 지배인이 어떤 도 크게 타산없이 일을 내민다는 소리가 나돌았다. 그러나 날이 바뀌고 한해가 지나자 공장의 생산은 이리저리러한 편파가 없이 정상상태에 올라서게 되었다. 생산이 한단계 또 한단계 올라설 때마다 공장에서는 단백질분석기, 지방측정기, 향은건조기 등 식료공장에서 갖추어야 할 분석설비들을 하나하나 마련해놓았다.

원료, 자재, 첨가제, 반제품, 완제품들의 위생학적검사, 물리화학적검사를 정장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때부터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새 제품개발을 염음에 박달듯이 밀고나갈수 있었다.

과학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진해나가겠다는 지배인의 사교관원이 한가지 제품도 힘들게 생산하던 공장을 이렇게 빠른 기간안에 비약의 직선주로우에 올려세워놓았던것이다.

지배인은 경영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모든 것을 지향시켜나갔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몇몇 기술일군들의 두뇌에 의거하여 진척되던 새 제품개발사업이 오늘날은 종업원모두가 개발자가 되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는것이 공장의 현실이다.

식료공은 생산순환주기가 짧고 목표 소비되는 특성이 짝하여 어느 공장에서나 끊임없는 새 제품개발을 위한 제나를 대로의 경영전략을 세우고있다. 문제는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옹세 따라서고있는가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것이다.

새 제품개발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심과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에서 힘을 넣은 사업의 하나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이었다. 처음 얼마동안 운영해보니 종업원들은 최우나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보급실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당에서 세워준 과학기술보급체계가 생산실현에서 그 운을 나타낼수가 없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종업원들이 재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전개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가 종업원들이 컴퓨터로 과학기술자료를 보는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날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서 학습장에 적도록 하였다. 그 정형에 대한 점검은 기술과성원들이 분담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 수반이던 말조차 모르던 생산자들의 지식수준이 점차 높아져 새 제품개발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놓고 기술일군들과 가치있는 의견을 척척 나누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영양음, 해바라기씨방 등 적지 않은 제품들이 바로 다음이던 생산자들의 머리속에서 장난된것이다.

지난 6월부터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를 컴퓨터를 통하여 제시하고있는데 여기에 생산자들이 저저마다 가치있는 의견을 두고하고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인민

들의 인기를 끄는 새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는 가 하는것은 공장의 기업활동의 핵심적인 지대인뿐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의 최대의 관심, 공동의 과제로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공장의 발전을 추동해갈 지식자원개발을 위해 일군들이 얼마나 머리물쓰며 경영관리를 과학화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다니다가선 이후에도 끝도안될 기를 비롯한 새 제품은 2종이나 개발되어 생산되자마자 인민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지금 상품표준비에 있는 새 제품은 3종이나 된다고 한다.

공장의 발전속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을 때마침 름순희지배인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 당정책에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소리지며 일떠설수 있는 방향이 다 밝혀져있습니다. 당정책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울은 말이다.

위대한 창조정신의 넘쳐나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힘달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경영관리의 내용과 방식, 모습에 이르기까지 당정책의 요구대로 해나간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놓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서 애국적인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나라의 강철기둥을 함께 세워가는 보람

흥남전극공장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우리보다도 흥남의 전극생산자들을 소개해주시시오. 지적이려면 한말을 달랠라 그들을 열쌍이주고싶습니다.》

이것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기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한 부탁이었다. 하여 우리는 흥남전극공장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연합기업소들이 집중되어있는 흥남방, 바로 그곳에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흥남전극공장이 있다.

공장에서는 당의 뜻대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리의 전극을 생산해냄으로써 나라의 강철기둥을 세우는데서 무시할수 없는 역할을 하고있었다.

북과남대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공장, 그 비결을 알고싶어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전극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있는 원료준비직장이었다.

40여년을 한직장에서 일해오면서 수많은 기술공들을 키웠고 풍부한 경험으로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류학상부부장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

이하였다. 그는 공장이 소리치며 내달리니 이렇게 기자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며 우리에게 지장이 몇해사이에 거둔 눈부신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은 직장이 펼쳐나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휴연전조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할수 있게 건설한 능력이 큰 야외휴연전조장, 커다란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새로 개건한 가공공정들...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꼽으며 부직장장은 그 모든것들에 집단의 지혜와 열정이 깃들었다고 중언부언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직장은 생산산출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대중체육활동에서도 공적으로 앞선 단위로 평가받고있는데 그것도 집단의 단합된 힘이 안아온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성과의 비결은 집단주의에 있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한 기대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집단주의기풍은 직장들모두간에 발휘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직장에는 밀폐식피치분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부보수직장 한사람만이 펼쳐내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애로와 난관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잊지 못할 8년전 같이 천재병을 맞으시며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승영히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곤 하였다.

이제 순간처럼 그날을 잊을수 없었다.

그들의 심장은 질풍을 양팔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갈 일념으로 세차게 일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전진을 견결함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이었다.

그나저나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그런 설계도면만도 수십장을 해내었다. 서로 돕고 이끌며 마침내 속출할부족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더이와 새로 만든 고온고압압력기의 동력이 올려져진 날 서로 열애하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어느날 공장초급당일꾼이 공부보수직장을 찾아왔다.

뛰어뛰니에도 전극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원료준비직장에서 원료가공을 잡아야 한다고 찾아다니며 그는 많은 전기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새로운 가공설비를 만들것을 학상해보았는데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그것만 만들어내면 피치분쇄시 먼지가 날리는것을 막을수 있고 원료도 절약할수 있었다.

하지만 제작하기가 간단치 않을것 같았다.

생산보장을 위해 밤에도 전부를 벌리고있는 공부보수직장 로동계급이어서 이렇게 풀이 드는 설비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한동안 흐르던 침묵을 깨뜨리며 공부보수직장은 초급당일꾼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과서도 없고 생산에 이바지하는것인데 열매만을 메서리라고 꼭 우리 힘으로 만들어줍시다.》

이것이 그만이 아닌 공부보수직장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했다.

매일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아 수많은 자료들을 탐독하고 원료준비직장 로동계급과 회의를 하고하면서 해결방도들을 찾아내는 그들을 공정의 일꾼들과 기술집단이 적극 도와주었다.

이런 고심어린 노력끝에 한달 만에 밀폐식피치분쇄기가 완성되었을 때 이들은 자기 힘을 믿

고 집단의 지혜를 합친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깨달았을수 있었다.

교과가 교대를 도와주고 직장이 직장을 도와주는 미풍속에 공정의 성과는 날로 늘어났다.

어버이수령님의 명도사상이 직장을 도와주는 미풍속에 원료로 생활집결제를 제조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초고전력전기로용전극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생산공정의 품유미화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었다.

이 직장에서 류달리 눈길을 끈것은 기대운영일이었다.

기대의 가동시간과 가공상태, 엄격점검정도와 인제인수내용 등 중요교과목 적어있는 이 일지에는 다음교대를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낸 정형도 기록되어있었다.

다음교대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이 직장 당세로위원장이었다.

최종정형도였는데 얼마전에 그는 사직기대결에서 순직했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당세로위원장으로, 사직기대대장으로 일해온 그는 사직기대뿐 아니라 직장의 모든 설비들의 운영일지에 다음교대를 위해, 기대의 만가들을 위해 한사람이 한가지의 좋은 일을 찾아하고 그 정형도를 기록해 두도록 할것을 지시하였다.

그의 뒤를 따라 너도나도 설비의 만가들을 위해, 작업반과 직장의 생산성과를 위해 떨쳐나섰다.

그런 직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모습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온 과학자, 기술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지금 그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생활집결제를 제조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초고전력전기로용전극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생산공정의 품유미화를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었다.

자력갱생기지에서 내외벽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단련된 벽들도 재생리용하고있다는 소성직장 로동계급의 투쟁에서도, 생산의 마지막공정을 맡아 집중을 함격포만을 가동해내는 전극가공직장 로동계급의 일출에서도 우리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당중앙위원회 4월결정회의 결정관철에 한마음한뜻이 되어 떨쳐나선 공장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보다 큰 로력적후원으로 맞이할 일념으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는 그들의 투쟁소식은 강선과 황해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에게 심신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오늘도 흥남전극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때 대한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전진의 보복을 힘차게 내딛고있다.

본사기자 오은별

평산대리석광산 3중3대혁명붉은기 연마직장에서

평산대리석광산 연마직장은 대리석생산에서 마감공정을 맡은 단위이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전초병이 될 맹세를 안고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에도 불같은 투쟁으로 남과 말을 이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서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꽃을 주저없이 피워내라 한다.》

지난 6월 중순 어느날 사무실에서 직장장 리춘상부무는 호명한 미소를 짓고 한장의 도면을 보고있었다.

1작업반장이 로동자 들속에서 나온 새 기술 혁신이라고 하며 놓고간것이였다.

혁신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결정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직장의 각 작업반에서 생산정상에서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있는데 직장장은 기뻐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종전에 만났던 1작업반장이 실감날듯 웃으며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우리모두가 오늘의 전진길을 나란히 앞장서 달려야 할 때 그만한 지혜와 열정이 커지고 나라의 재부가 늘어났으니 아닙니까.》

이것은 신입로동자들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급기능공인 정기남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집단의 단합된 힘이아말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라는것을 연마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나날에 다시금 심장이 새겨안고있다.

기적창조의 불길은 하나로 합쳐진 마음,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이 지펴올릴 때 더 거세게 된다. 집단의 그 힘과 의지로 대리석생산에서 장운을 부른다.

이것은 직장장 리춘상부무의 배심이자 연마직장 전체 종업원들의 결심이다.

그들의 의지를 증명하듯 대리석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중요대상건설장들로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명철

전투를 힘차게 벌리는 그들의 모습은 온 직장 종업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아바이들도 참, 그만 좀 쉬엄쉬엄 일하시라는데...》

젊은 기능공들이 이렇게 말할 때면 그들은 당을 받드는 마음에는 로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좀처럼 입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으로 당을 응원하자! 당의 뜻을 심장이 새겨안고 직장의 모든 로동자들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새겨가고있다.

《우리모두가 오늘의 전진길을 나란히 앞장서 달려야 할 때 그만한 지혜와 열정이 커지고 나라의 재부가 늘어났으니 아닙니까.》

이것은 신입로동자들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급기능공인 정기남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집단의 단합된 힘이아말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라는것을 연마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나날에 다시금 심장이 새겨안고있다.

기적창조의 불길은 하나로 합쳐진 마음,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이 지펴올릴 때 더 거세게 된다. 집단의 그 힘과 의지로 대리석생산에서 장운을 부른다.

이것은 직장장 리춘상부무의 배심이자 연마직장 전체 종업원들의 결심이다.

그들의 의지를 증명하듯 대리석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중요대상건설장들로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명철

한마음으로 피워가는 《철쭉》

평양양말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철쭉》이라는 상표와 더불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평양양말공장에서 혁신의 풍운이 높이 울려 퍼졌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승호인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애국 한마음으로 《철쭉》을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집단주의의 위력이다.》

집체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철쭉》상표양말을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제품으로!

이것은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드림같은 투쟁목표이다.

하기에 그들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되는것은 찾아내면서 재공을 부단히 노력하였다.

오늘날 양말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고온고압염색기도 공정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자체로 제작하였다. 사실 그들이 염색기를 자체로 만들것을 결의해나섰을 때 그들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염색기의 핵심부조가 할수 없는 축류펌프는 한민 만들어본적도 없었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도 용요하지도 않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준비직장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맥을 놓고 주저않는다면 양말의 색깔을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잘 정하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완철하였는가. 기어이 우리 힘으로 축류펌프를 완성하자. 모두가 이런 결심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내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애로와 난관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잊지 못할 8년전 같이 천재병을 맞으시며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승영히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곤 하였다.

이제 순간처럼 그날을 잊을수 없었다.

그들의 심장은 질풍을 양팔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워갈 일념으로 세차게 일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전진을 견결함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이었다.

그나저나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그런 설계도면만도 수십장을 해내었다. 서로 돕고 이끌며 마침내 속출할부족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더이와 새로 만든 고온고압압력기의 동력이 올려져진 날 서로 열애하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 그들이 다시금 같이 새겨안은 철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굳게 뭉친 집단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힘이아말로 비약의 나날이 전개되었다.

자연의 철쭉은 한겨레에만 피어난다. 하지만 서로가 뜻과 마음을 합쳐가는 집단주의열풍속에 평양의 《철쭉》은 이렇게 사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것이다.

오늘 평양양말공장으로는 마치 《철쭉》 향기에 끌려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에게 공정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집단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지향한 성과를 안아왔다!

이 땅에서는 낱알 한알, 석란 한송, 천 한송도 이렇게 나온다. 그런 전진을 누가 가로막으며 그런 힘을 파인 누가 당해낼수 있느냐.

공장이 이룩한 성과와 이뿐만이 아니다.

물론화공정의 확립과 날을 따라 늘어나는 기능공들의 대중동공정의 자라는 함으로 많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들은 집단주의위력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였다.

본사기자 신철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빛나는 위훈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대안로동계급은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한사람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그들이 지향도 승결도 일본새도 하나같이 때문이다.

일마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잇닿아있는 중요대상의 설비생산을 위해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혁신적성과를 이룩해가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미려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이여만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울리고 바다도 무너지는 격정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동이며 위훈입니다.》

지난 7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로동자들은 중중형수력발전설비부품공들을 부활한 한 군으로 떠나보냈다.

이 파제가 제기되던 당시 직장에서 중요한 중요대상설비생산도 노랗고 반이 따르 없는 긴장된 전투를 벌이고있었다. 하지만 직장일꾼들은 추가된 파제를 군말없이 받아들였다.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전기인데 발전설비생산자들은 우리들이 뭐고 뭐라하.)

이렇게 생각한 일꾼들은 현장회의를 열었다.

사안을 안 로동자들의 심정도 한결같았다.

《합시다. 발전기가 크든작든 우리 힘이 아닙니까.》

일감은 늘어났지만 직장의 전투분위기는 더욱 앙양되었고 생산속도도 비할바없이 빨라졌다.

그러하여 불과 한달만에 완성된 발전설비부품들을 해당 지역으로 떠나보내게 된것이였다.

그때 발전설비조립직장원들은 명절맞이를 못하듯 흥성이었다.

누구나 한창기중기가 발전설비부품공들을 자동차적제함에 싣는 모습을 흐트하게 바라보았다. 《조선집권!》 《부여이 폭로!》 하고 북성을 드는 로동자들도 있었다.

발전설비부품공들을 다 실은 자동차가 발음을 걸고 현장구내를 서서히 벗어나던 때 직장의 오랜 기능공들의 눈가에 맑은것이 그윽하게 고여올랐다.

《또 한대 나가는군.》

그들이 조용히 읊조리는 이 한마디, 그러나 얼마나 뜨거운 추억들이 그들의 가슴을 불같이 지지며 눈앞으로 흘러

갔던가.

최진발전소, 원산발전소, 배두산발전소, 원산발전소...

그뿐만이 아닌 배성강과 어랑천 등 나라의 곳곳에서 그들의 피라는 사색과 탐구, 성실한 탐이 숨에인 발전기들이 자랑찬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발전설비조립직장원들의 삶과 투쟁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잇닿아있는 남다른 자부심도 세로 세 힘이 부족부족 솟구치는 그들이었다.

발전설비부품공들을 떠나보낸 후 직장장 김강학부무는 직장의 한 기능공과 함께 그곳으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현지에서 가서 발전설비의 조립작업을 도와주려는것이였다.

직장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나라의 전력생애에 이바지하려는 하나의 지향, 하나의 승결로 지혜와 열정을 함격포 직장에 맡겨라면서 열매를 지낸다고 해도 힘입지 않는 생각이 종업원들의 일손에 더욱 붙어 일게

기능공들과 작업반들은 직장 종업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또 다른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수력발전작업반 한남동무는 우리 나라 중형발전설비 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하고있다.

현장에서 살다살이 하며 일하는 그에게 땅이 새 아기를 낳았다. 그는 기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몇달전이라고 한다. 한말을에 달려가 보고있었지만 긴장한 작업일정은 그로 하여금 잠시도 몸을 뻗지 못했다.

그를 대신하여 직장일꾼들이 나섰다. 그들은 전부모인 심정으로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순산한 딸과 아기를 데리고왔던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한남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종업원들에게 자그마한 집근심이라도 있을새라 늘 마음속으로 쓰는 직장일꾼들, 농촌지천이나 도로보수공사에 나갔다가도 일부러 길을 에둘러 종업원들의 집을 찾아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가 없는가, 수시로 돌아오는 정경은 사람들, 그런 일꾼들과 함께라면 열매를 지낸다고 해도 힘입지 않는 생각이 종업원들의 일손에 더욱 붙어 일게

하였다.

최근년간 직장에서는 제대군인들을 비롯하여 여러 종업원들에게 집을 건설하여주었다.

그들의 집을 짓는 문제가 나섰을 때 온 직장이 한마음이 되어 떨쳐나섰다.

발전설비조립직장과 살림건설전투를 동시에 밀고나간 직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함께 일하는 종업원의 아픔을 자신의것으로 여기는 뜨거운 정성이 불타고있었다.

서로 돕고 이르는 파정에 더 화목해지고 단합된 직장의 위력은 모든 종업원들을 다그칠수 있는 소중한 만능가늀을 만들기 위한 기술학습과 수시로 제기되는 대안설비생산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직장으로부터 제일 나이 어린 신입로동자들이 이르기까지 한 마음한뜻이 되어 직장앞에 맡겨진 파제들을 훌륭히 완수해가는 발전설비조립직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그들의 심장마다 하나의 인심이 간직되어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대안로동계급이 있다!

정령 그것은 직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떨쳐내는 집단적혁신과 위훈의 밑뿌리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고향땅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신양군 창계협동농장 청년분조를 찾아서

신양군 창계 협동농장에서 부러 산경을 돌아 약 한시간만 가량 올라가니

라니 산촌의 유다른 정서를 더해 주며 산중턱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자리잡은 청년분조촌을 만나게 되니 한쪽의 그림자만 언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부름이리만큼 떨고 협한 곳이라도 다 찾아가고있으며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한 리양일꾼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청년분조가 생겨났다는 여러해전인데 그동안 이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는것이였다.

농장에서는 농사지들을 이 분조에 보내어 부름소가 될 때까지 키우도록 하는데 자기 농장이 군적으로도 소중해줄수 있는 자라를 양호하지 않는다는 청년분조원들의 수고와 크게 깃들었다는것이였다. 실제로 농장은 모범축산농장의 영예를 지닌 단위로였다.

자체의 힘으로 분조원들과 소우리를 짓고 말에서 강변이와 남새농사도 지으며 분조살림을 풍성하게 꾸려나가는 이삭쟁이

들이라는 말에 한시바머 이들을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으며 우리는 눈앞의 산뜻한 분조 건물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일마침 마당가에 들어서니 과연 청년들이 사는 곳이 다르구나 하는 감안이 절로 흘러나왔다. 지붕우에서 펼쳐 휘날리는 청년분조기발, 호소성이 강한 표어, 산골에 흔한 돌로 맵시있게 쌓은 계단...

청년학교와 칩실, 취사장이며 세면장 등이 잇달린 건물안은 또 얼마나 규모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있는가.

분조성원들의 이름이 붙은 배밭과까지 갖추어져있는 시설은 꼭 인민군대의 병실을 방불케 했다. 물론 부속이 몇 청년들의 일본분조기발과 기계들이 생활을 엮보게 하는 세부들이었다.

분조성원들은 아직 일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건물에는 식사방식을 맡은 한명의 분조원만이 있을뿐이었다.

그에게서 분조원들은 현재 10명이지만 분조가 발아 방향과있고 있는 소와 닭은 수십 마리나 된다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있는데 문득 40대의 한 남성이 온통 잠주머니가 되어 들어서는것이였다.

우리는 리양일꾼의 소개를 받고서야 그가 이곳 분조장사를 하는 신영철동무임을 알게 되었다.

그 10년동안 분조장사를 해오며 분조를 보는 면에서 손색없이 꾸려놓은 그는 자신하여 이곳에 남아 분조원들의 생활을 돌보아주고있었다.

그는 분조의 유일한 당원이였으며 모든 분조원들의 단형이였다.

심산속에 분조건물을 일떠세우던 이야기며 깊은 밤 방북자를 오가며 소를 찾아야하면 이야기, 분조원 한사람한사람을 분조의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던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가 분조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실로 족했다.

어느덧 사위가 어두워져자 창밖에서는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울렸다. 분조원들이 일출을 팔내고 들어온것이였다.

우리는 그들과도 반갑게 인사할 나누었다.

성격도 하나같이 시원시원한 그들은 인차 우리를 친숙해했다. 처음 집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 때에는 힘도 들었고 지어 나약한 생각까지 들었고도 한다. 그러나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반드시 자기 손으로

안아와야 한다는 자각, 자기가 나서서라도 고향땅을 기어이 제 손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겠다는 불같은 청춘의 열정이 그들을 오로지한 농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로 자라나게 했던것이였다.

고향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그 어떤 고난과 난관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였다.

우리는 아쉽게도 모든 분조원들을 만나보지는 못하였다. 멀리 이등방목을 나간 몇명의 분조원들은 소의 증제들을 놓이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있다는것이였다. 비록 그들은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깊은 산중에서도 볼 같은 열정과 광만에 넘쳐 일하고있는 미려운 모습들이 보이는듯싶었다.

우리가 청년분조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안은 감흥은 참으로 컸다.

조국방 어디에나 이런 미려운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러도 기세차게 전진하며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 것이였다.

유광진

은 이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난해 자기들은 청년장군의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대지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전국의 호준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으며 한없는 격정으로 설레었다.

밤이 세도록 잠 못 이루던 그들은 앞으로 일꾼을 더욱 동이 크게 벌려 당의 믿음과 기대에 꼭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줄은 결의도 다지졌다.

우리는 아쉽게도 모든 분조원들을 만나보지는 못하였다. 멀리 이등방목을 나간 몇명의 분조원들은 소의 증제들을 놓이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있다는것이였다. 비록 그들은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깊은 산중에서도 볼 같은 열정과 광만에 넘쳐 일하고있는 미려운 모습들이 보이는듯싶었다.

우리가 청년분조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안은 감흥은 참으로 컸다.

조국방 어디에나 이런 미려운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러도 기세차게 전진하며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 것이였다.

유광진

전투력 있는 단위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정밀가공직장은 일 잘하는 집단, 전투력 있는 단위로 소문이 자자하다.

인제인가 정밀공작기계의 어느 한 부속품을 시급히 교체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부속품의 마모로 하여 개조본 제품을 절이 대체로 보충되지 못하는것을 두고 안락까와하던 그들은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그 부속품을 가공할것을 결심하였었다.

공장에서 수심년새월 선반공으로 일해오고있는 작업반장 신창진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기능공들은 현장에서 살다살이 하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다.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그들은 부속품을 자체로 가공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제품의 질이 우수하고도 표면정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룩한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가공프로그램을 갱신하여 기관분체와 기관커버 등에 대한 가공에서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그 나날에 기계공들의 기술기능수준도 한계만 높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청년분조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안은 감흥은 참으로 컸다.》

조국방 어디에나 이런 미려운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러도 기세차게 전진하며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 것이였다.

본사기자 전용



새로운 교수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평성교원대학에서- 본사기자 전용

